

예수 성탄 대축일

기도서 P. 231 성탄 낮미사
 1독 (이 사 52, 7-10절)
 2독 (헤 브 1, 1-6절)
 복음 (요 한 1, 45-18절)
 혹은 1, 1-5. 9-14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1977년 성탄 메시지 □

인간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

은 누리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축일을 맞이하여 나는 교구민과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밤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현 사회를 외면하지 않으시어,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 탄생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과 사회 속에서 인간의 온갖 흉악한 생각과 부정, 증오와 독선을 사랑으로 말끔히 불태워 주시며, 모든 사람이 한 형제가 되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인종과 계급의 아무런 구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믿고 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을 비인간화(非人間化)하는 일체의 속박과 예속에서 해방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인간을 인간답게 회복시키는 바로 그 일이 그분이 세상에 파견된 일대(一大) 과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과업을 이루어나감에 있어, 그분에게는 오히려 당시의 종교, 정치 및 사회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의 온갖 죄목이 주어졌습니다. 즉 독성죄, 민중선동죄, 소요죄를 범했다 하여 대죄인들만이 지는 십자가를 메고 도적들 속에 섞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과 박해를 받아가며 비참하게 돌아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나의 길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부르며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더우기 그분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신 분인데, 과연 우리가 그분 때문에 어떠한 위험을 당하더라도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특히 이 나라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 척도요, 오늘의 교회의 존재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땅의 소금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 때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까? 오늘은 주의 성탄을 축하하고, 내일은 또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는다면, 이 사회는 누가 구원의 길로 인도 하겠습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환탄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는 증보자(仲保者)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 위에서 남과 북으로 갈려 대립된 채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대립은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권력을 가진자들이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무한한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약자를 짓눌러대니, 거기에는 민족의 분노가 생기고 동족끼리의 적의가 날로 심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도 사회도 이를 방관하고 있을 뿐더러, 때로는 오히려 권력과 힘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마저 이를 외면한다면 이 땅의 '보잘 것 없는, 형제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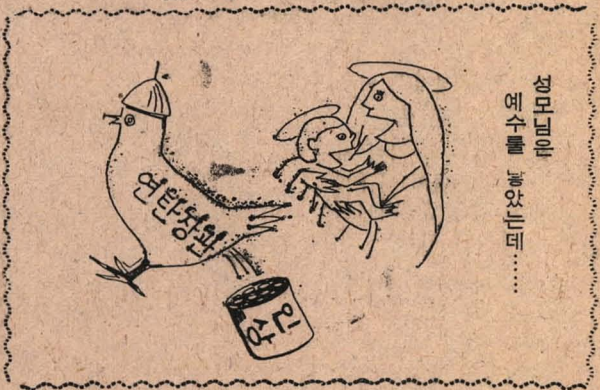
이사야 말씀대로 “탈신한 민족, 불의로 가득찬 백성, 사악한 자, 부패한 자식들…… 머리는 상처 투성이고 속은 온통 병이 들었으며…… 성탄제가 없이……”(이사야 1, 4-6) 온갖 허위와 부정, 증오와 이기심, 그리고 독선이 가득 차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로 나간다면 자멸의 길 외에 또 다른 살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모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안에 오셔서 맡겨준 과업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일이며, 하느님의 뜻만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탄생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특히 가난한 농민, 노동자, 억눌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할 것은 예, 아니오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분명히 대답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2면에 계속)

숲 정 이 산책



(1면에서 계속)

그리하여 가난한자, 굶주린자, 헐벗은자, 병든자, 욕에 갇힌자 등 불행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하여 “세상에서 잘못된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잘못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마태오 25, 31-46), 마지막날 우리의 심판관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이 시대 안에 다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주의 길을 같이 걸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 각박한 현실에 뛰어들어 격돌하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대신 배를 맞고,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분풀이를 당해가며 이 사회의 평화의 사도로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는 증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련이 따릅니다.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도 가난한자들에 대한 그의 너무나 큰 사랑과 가진자들에 대한 도전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크실 것입니다. 아마 공산주의의 동조자로 의심받아 반공법으로 기소되어 사형되었던지, 사실 왜곡죄·정치가담죄·민중선동죄·음모죄 등으로 반정부자라는 낙인이 찍혀 감옥에 제실된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면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제도 박해가 있고 십자가가 뒤따른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친애하는 교향자매 여러분!

즐거운 성탄을 맞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인간회복을 위하여 예언자의 길을 걸다가 투옥되거나 구속된 양심수인들(특히 학생, 교수, 성직자)과 아직도 어려운 환경 중에서 고통을 받는 형제들, 가난하고 버림받고 헐벗은 자들과 한 형제되어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분연히 일어섭시다. 이걸이 바로 성탄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977년 성탄축일에
전주교구장 김재덕 주교

(시) 冬 至
시 광 석

돌아오지 않는 언어들
차라리 밤 하늘에 내려버렸다
철조망울 지키는 병사며
찬 방 위에 이불 덮는 남은 이들의 것
깜박이다 녹아버릴 별들이 假相에 서고
마을 안에만 가득한 발자국
속이더라도 진실은 이렇게 오는데
아직 매서운 바람

그래도 하늘 땅 사이 사랑하는 마음들이여
아, 이제 촛불이 낡구나
지나온 길은 굽었거니와
새 길을 떠나자

귀 기울여 웃길 여미면
번 데 증소리
나려온 말씀
예루살렘의 평화



“빵만이 아니라
인간 회복되어야 행복”

김수환 추기경은 15일 성탄 메시지를 발표, 죄의 명과와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온 인류가 구세주의 은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원했다.

김추기경은 이 메시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될 때 참으로 구원될 수 있다”고 전제,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빵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회복될 때 인간적으로 존중되고 사랑받을 때,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유를 되찾을 때 세상은 정말 밝고 따뜻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곤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저임금에 허덕이는 영세 근로자, 빈곤을 면치 못하는 농어민들, 도시 판자촌의 극빈자들, 온갖 병고와 비참 속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사랑을 탄생시켜 우리 모두가 이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나누면서 형제들이 우리의 사랑에 힘입어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구하는 메시지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이들과 일치되면서 온갖 시련과 삶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주고 정의와 진리로서 이들의 인격과 인권을 회복시키고 사람다운 삶과 가치를 소생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東亞日報 12월16일자 7면에서)

대전교구장 황민성 주교도 성탄교서에서 “현대인은 부족과 갈등을 물질이나 쾌락, 권세나 일신의 영예로써 채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기서부터 온갖 부정과 부패가 싹튼다” 경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비참은 재산의 균형있는 분배를 거부하는데 기인하고 영신적 비참은 시간과 마음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데서 오며, 모든 양성적이거나 음성적인 질환, 고민, 천대, 근심, 걱정, 증오, 실망등은 일종의 부족이며 굶주림”이라고 말하며, “빈부의 차와 권력의 남용이 심하고 물질과 쾌락을 숭상하는 사회에는 인권유린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인간을 노예화하고 경제도구나 정치도구화하는 악습이 판을 치게 마련”이라고 말하고, “성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서 이러한 부조리를 극복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선물하시는 신비”이므로 “우리에게 영광을 얻어주시기 위해 성모님을 의지해서 피눈물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마태오 15, 24) 마음 속에 깃들이는 영광의 빛을 고이 간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주교는 특히 “하느님의 정의 안에서 살고 죽는 모든 이를 존경하자”며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평화와 놀라운 부활을 약속하신다”고 말했다.

□설계·감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향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4

전화3-7780 3-1449(야자)

전북 빈첸시오 발기 총회에...

이 종 원 신부

어느 어머니들이나 첫아기를 가지게 되면 한 번쯤 깊은 부정에 빠지게 되어 고민을 한다고 하더군요. 배속에 든 아이가 "신체적인 불구자가 아닐지?"하고...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생각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이고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지난 1977년 11월 26일 전북 신대인 천주교회에서 순진한 어머니들이 산일(産日)을 앞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것 같은 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전북 빈첸시오 이사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먼저 신대인 협의회 지도신부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모든 조건, 특히 불행한 조건들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건들이 인간본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사회적 여건에 기인하는 것이든간에 이웃들의 슬픔과 고통은 바로 우리의 것임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맨처음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시어,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안겨주고,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놓아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였다"(루가 4, 18-19)하시면서 당신의 복음이 인간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과업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인간의 지상적인 여건을 도외하시지 않았읍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있을 때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사이파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항의를 하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내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자선이다 하신 말씀의 뜻을 좀 배우시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읍니다"(마태 9, 12-14). "병든 자를 치유시켰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봉사입니다"(마태 25, 34-36). "가난한 사람은 항상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정의로 봉사해야 합니다"(마태 23, 23).

위에 열거한 말씀들은 바로 복음서의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봉사의 정신이 계속 전승되어 미천한 이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실천했습니다. 재산을 공동소유하여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며(사도 2, 44-45),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사도 4, 32-34)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신자들의 공동체를 부러워하였고 그 공동체에 들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빈첸시오회는 이러한 복음사상과 초대교회의 봉사정신을 각자 처지에서 실천해보고자 1883년 파리에서 프레드리코자남씨에 의해 창설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는 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사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현재속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와 닮아보려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탄생된지 얼마 안되는 전북지구 빈첸시오 이사회지만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려는 사람을 늘리므로 하늘나라가 땅에서도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셉이 (230) 김병오



□ 주산반 · 부기반 · 경리실무반 □

삼일주산경리학원

수시접수 (국교, 중고등, 일반)

정진경 (분도)

☎ ② 1462

병무청 ↔ 구법원 중산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 (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현대 칼라 특약점 □

태양사

김스테파노 (종범)

- 특수 촬영 기술 무료로
 - 고급 카메라 대여, 수리전문
 - 회갑·결혼 야의 칼라사진출사
 - 각종 칼라 필름 판매
- 정읍 소방서 앞 ☎ 5404번

□ 찾아 주세요 □

이신경 외과 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대구집)

전화 ②-9793

원장 이종두 (헨리프)

난방시설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②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킨

문화양행

하정희 (엘리사벳)

팔달로 송외파 맞은편 2-3170.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등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승엽 (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제4 지구 각 본당 소식



※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가 2, 14)

- 1. 신년 교례회(78년 1월 1일 <일> 오전 11시 반, 가톨릭 센터)
※ 회비 1,000원... 점심제공과 교구 연합 중정
- 2. 제11차 남성 꾸르실료(2일 <일> 오후 6시-5일 <목>, 가톨릭 센터, 회비 8,000원)
수강 희망자는 오늘까지 본당 신부님 주침 받아서 접수 하세요.
- 3. 중 고등학생회 목상회(6 <금>-8일 <일>), 가톨릭 센터) 참가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세요.
- 4. 군옥지구 졸업생 축하미사(12월 31일 <토>, 오후 7시, 월명동 성당)
- 5. 성서 목상회(31일 <토>-78년 1월 2일 <박 3일>, 가톨릭 센터, 회비 4,200원)
교구내 성서에 관심이 있는 젊은 남녀분들의 참여 바람
- 성탄미사 안내 밤미사... 1독(이사 9, 24, 6-7), 2독(디도 2, 11-14), 복음(루가 2, 1-14)
새벽미사... 1독(이사 62, 11-12), 2독(터도 3, 4-7), 복음(루가 2, 15-20)
-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마인드 콘트를(78년 1월 9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는 전주에서)
- 문화방송 안내: 25일 아침 7시 40분 「성탄 메시지」 주교님 방송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울 복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복 석

- 1. 성탄 미사: 24일 <토> 자정 미사-주교님 집전, 25일-오전 9시(학생)·10시반(공식), 오후 7시반
- 2. 사제 서품: 27일 <화> 오전 10시반
- 3. 상지회: 28일 <수> 오후 6시, 사제관
- 4. 송년 미사: 31일 <토> 오후 7시반
- 지난주 봉헌금: 132,521원

(노솔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동 사도 회장 박 중 용

-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 2. 본당 울드레아: 30일 <금> 저녁 미사후, 남녀 꾸르실 리스타 참석 바람
- ※ 30일 <금> 오전 어머니 미사는 없음
- 3. 망년 미사: 31일 <토> 밤 11시 45분 성체강복, 12시 미사
- 4. 신정 미사: 오전 6시반, 10시, 오후 7시
- 5. 레지오 마리에 연총 친목회: 28일 <수> 저녁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57,185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 1. 성탄 행사 안내: 밤 8-11시(빙고게임, 주일 학교생 발표회), 자정 미사후(성탄 파티, 교우분들 참여 바람-부녀회 파티 준비에 수고 감사!)
- 2. 성탄 미사(25일): 오전 10시, 오후 7시반
- 신축 헌금 감사! 송영기(3만원), 최춘순(5천원), 합계 11,425,500원
- 지난주 봉헌금: 46,840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 1. 축 영세!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 2. 미납분, 추가분 교무금 속히 완납 합니다

- 3. 주일·연중 봉헌금(교무금) 봉투제 실시 십일조 정신으로 정성껏.....

- 4. 복자의 밤: 밤 8시반 부터
- 5. 레지오 연총친목회: 30일 밤 8시, 단원 및 협조단원
- 지난주 봉헌금: 45,995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 1. 성탄 미사: 오전 10시, 오후 7시
- 2. 서품식: 27일 10시반, 중앙 성당
현유복(분도)사제 서품, 김성진(도마)부제품
- 3. 새신부(현분도)첫미사: 28일 11시(축하식 있음)
- 4. 신용 조합원은 31일 이내 통장 대조 바람
- 5. 레지오 연총 친목회: 30일 <금> 밤 8시, 단원·협조단원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43,735원

(숲정리)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 1. 누갈다 부녀회 목상회: 28·29일, 가톨릭 센터
- 2. 성탄 밤미사 전까지 고백성사 보세요
- 3. 성탄 미사: 24일 밤 12시, 25일-오전 10시, 오후 7시
- 지난주 봉헌금: 125,830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윤 석 사도 회장 유 석 중

-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반
- 2. 범영배 새신부 첫미사: 27일 오후 5시, 본당
- 3. 축! 김스테파노 주임 신부님 영명 축하식: 오늘 10시 미사 직후 (10시 미사 길 주교님 집전)
- 4. 장우회 연총 친목회: 오늘 저녁 미사후
- 5. 성가정회 정기총회: 내일 오후 2시
- 6. 꾸르실료 수강 신청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 7. 전화번호 신청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 8. 성서 동지회(B·F) 세미나: 31일, 가톨릭 센터
- 지난주 봉헌금: 143,790원



대성상사

(제일페인트 전주대리점)

페인트·타이루·건재·합판 도산매, 공사청부

교우들의 깨끗한 집단장을 도와드릴 송 호 현 (아오스명) 이 남 용 (야고버) 이 정 수 (암브로시오)

★ 전주시 진북동 326-5 (전화 3-6291)

